

심달야

지금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과 관련하여 민족교육에서도 많은 애로와 난관을 겪고있다.

내가 근무하는 아마가사끼조선초중급학교에서도 이 난국을 타개하려고 온라인수업, 원격수업준비에 교직원들이 한사람같이 달라붙고있다.

나는 컴퓨터다루기를 잘 못하는 편이지만 학생들을 위하는 일이니 제딴에는 이를 악물고 여러 선생님을 찾아다니면서 나날이 익혀나가고있다.

시행착오를 여러번 겪으면서도 기계와 씨름하여 겨우 어느정도 컴퓨터를 만질수 있게는 되었다.

드디어 학생들과 만나는 날이 왔다.

어쩐지 두근두근 가슴이 울렸다.

오전 9시 30분.

학생들의 얼굴이 하나둘씩 화면에 비쳤다. 그 수는 줄줄이 늘어난다. 모두가 나타나서 출석을 확인한다.

학생이름을 부르는 내 목소리는 어느새 떨렸다.

(왜 이렇가? 며칠간 기계하고만 힘들게 일하던 그 긴장이 풀려서일가. 아니 졸업식날에 졸업생을 호명하는 그 순간의 감명이 되살아난걸가...)

그런데 그런 감정과는 또 달랐다는것을 깨달았다.

바로 25년전 한신,아와지대진재가 있어 6

학년울 말던 내가 학생들앞에서 오랜만에 출석확인을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던 그날그때의 감동과 비슷하였던것이다.

대진재이후 처음으로 학생들을 교실에서 만났을 때 그들은 환한 웃음으로 서로를 위로하였었다. 바로 이번에도 호명이 끝난 순간 학생들은 반가운나머지 환히 웃으면서 환성을 터쳤다.

만나지 못한 리유는 달라도 화면상에 펼쳐진 광경은 내게는 무언지 같아보였다.

지금 일본땅 방방곡곡에서 민족교육을 기어이 지켜나가려는 동포들의 지혜와 힘이 모아지고있다. 한신,아와지대진재때도 그러했다.

그리고 언제나 큰 고무를 주는것은 세계적인 혼란이 이어지는 속에서도 끄떡없는 모습으로 정면돌파전을 벌려나가고있는 우리 조국의 참모습이다.

나도 조국의 정신을 본받아 우리 학생들의 밝은 웃음이 활짝 피어오르도록, 학부모들의 걱정과 불안이 가셔지도록 본분을 다해나갈것이다.

오늘도 학생들의 림림한 모습과 웃음넘친 얼굴이 화면상에 안겨온다.
아직은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수는 없어도
우리 학생들에게 그들이 지지 않도록 언제나 정성을 다해가리라.